

1년 남은 李대통령 광주·전남 대선 공약사업 26건 살펴보니

완료 '0', 9건은 손도 못 댔다

추진중인 17건도 절반 이상 지지부진

정부 무관심·찔끔 예산 '空約' 가능성

임기 1년여를 남겨둔 이명박 정부의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이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대부분 제외되고 이행률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주요 공약은 뒤늦게 '찔끔' 예산으로 걸치려만 한 채 진척되지 않고 있고, 일부는 정부의 외면으로 아예 사업 자체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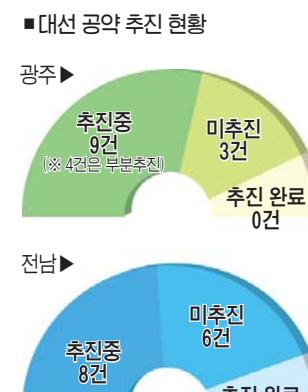
남은 임기를 감안하면 '공수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관련기사 3면>

1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제17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 26개(광주 12개·전남 14개) 가운데 완료된 공약사업은 단 한 건도 없고, 9개(34.6%) 공약은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17개(65.3%) 공약사업은 현재 추진중이긴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부분 추진되거나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진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정권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의 경우 문화상품 복합단지 조성과 국립 노화연구소 설립 유통, 한국 민주주의 전당 유치 등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1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도 아직까지 사업 학수 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추진중인 일부 사업도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서남권 원자력의원 설립 공약은 올해 간신히 설계용역비 50억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반영돼 뒤늦게 사업이 추진되는 등 4개의 공약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



고 있다. 반면 부산의 동남권 원자력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이미 개관을 해 영·호남 지역간 공약 이행률이 긍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광주연구개발(R&D) 특구 지정 및 육성 사업과 가전로봇 산업 유통,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영산강 살리기,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등 5건의 공약은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대선 공약이 많지도 않은 만큼 남은 임기 중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설을 포함한 환경해권 전진 기지 육성 사업 등이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J프로젝트는 땅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무안 한중국제산업단지는 사업규모가 애초보다 축소되는 등 표류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무안 국제공항에 외국계 물류회사와 첨단 제조업체 물류센터 유치 등을 통한 중개 물류 중심 공항 육성을 공약했지만, 현재 무안 국제공항은 폐쇄 위기에 놓일 만큼 '무너만 국제공항'으로 전락해 있다.

오는 2017년까지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도 임기 내에 조기 개통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광주~목포 구간의 노선 확정도 못한 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대선 공약이 많지도 않은 만큼 남은 임기 중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은 서남해안관광·해양레저 거점(J프로젝트) 조성과 무안기업 도시와 목포항 크루즈 전용부두 건



"어휴 추워" 광주·전남 아침 최고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눈발이 날리는 등 본격적인 겨울추위가 찾아온 1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길가에 나들이 나온 어린이들이 두툼한 옷을 껴입은 채 밟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공립 6배…사립유치원비 '무섭네'

전국 평균 월 32만원…국·공립대 연간 등록금 보다 많아

교과부·교육청 실태조사

광주·전남지역 월평균 사립 유치원비가 공립 보다 각각 7.7배, 6.4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무려 13배에 달했다.

14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사립 유치원비(수업료+기타납부금, 반일제 기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올해 전북의 월평균 사립유치원비는 30만5000원으로 공립(2만3000원)의 13배에 달해 전국 최고액이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월평균 사립유치원비는 32만2000원으로 공립(5만4000원)보다 6배 가량 비쌌다.

충남(10.0배), 경북(8.1배), 제주(7.9배), 경남(7.8배), 광주(7.7배), 전남(6.4배) 등도 사립과 공립유치원비의 차이가 큰 편이었다. 광주와 전남 공립유치원의 월평균 유치원비는 각각 4만4000원, 5만4000원이었다.

월평균 사립유치원비가 가장 비싼 곳은 경기도(37만2000원)였고 서울(36만7000원), 인천(33만4000원), 전남(32만3000원)과 전북이 월 30만원이 넘었다.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광주에서 15~20분대의 우수한 접근성과
밀리지 않는 정확한 티오프시간으로 고객의 시간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혜택이 좋은 회원권 보다는 대우받는 회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행복한 미